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및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김은주 · 김진경

동남보건대학 치위생과

색인 : 치위생과 학생, 취업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유형

연락처: 김은주 우) 440-71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37

휴대폰: 011-448-6747 e-mail: hygienjoo74@hanmail.net

1. 서론

오늘날, 우리들은 매우 복잡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예기치 못한 온갖 자극에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부딪치게 되면 긴장과 불편을 느끼게 되며 우리는 이것을 흔히 '스트레스(stress)' 라고 부르고 있다¹⁾. 스트레스의 개념은 환경의 자극, 유기체의 반응, 환경과 개체간의 상호작용의 3가지로 분류²⁻⁵⁾되는데, 환경의 자극이라는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환경의 자극이 최적 수준보다 과도하거나 부족한 것이며, 유기체의 반응이라는 관점에서의 스트레스는 체외에서 가해진 각종의 유해 자극에 의해서 체내에 생긴 상해와 방위반응의 총화이고,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스트레스는 환경과 개체간의 적합성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막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속에서 부딪치는 삶의 어려움을 통틀어 스트레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늘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동기에는 부모나 주변의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서 중요한 선택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청년기와 성인기

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⁶⁾. 대학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과도기이고 대학생들은 대학 시절 동안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장래 계획을 설정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발달과정을 수행하게 된다¹⁾. 결국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 추구 뿐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진로의 결정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을 가지게 된다⁷⁾.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종 스트레스의 영향에 의하여 정신적 부조화, 정서적 갈등,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청년 실업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취업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초래하며, 취업스트레스(employment stress)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취업에 대한 부담감과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⁸⁾.

취업스트레스라는 말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주는 삶의 어려움, 즉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분별하여 나아가는 것은 좋은 스트레스라 할 수 있을 것이나 너무 과중하거나 여러 개가 겹쳐 있으면 짓눌리게 되어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 환경 등은 모두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징후를 인지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식을 찾아 좋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령별로, 직업별로 비교적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대처방식과 연관 지어 발표된 연구는 많지 않다⁷⁾¹²⁾.

실제로 매일 신문사와 조사 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한 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0.2%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서 '술을 마신다'(18.3%), '음악을 듣는다'(17.3%), '별다른 방법이 없다'(15.9%), '잠을 잔다'(15.7%), '운동 한다'(10.8%), '쇼핑 한다'(9.3%), '청소 한다'(4.8%), '먹는다'(2.1%), '기타'(5.8%)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보아도 우리는 스트레스 심각성에 비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관리를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4개 대학 치위생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의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처방안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다고 잘 알려진 치위생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현황과 대처방식을 알아보고 타 전공과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에 도움을 주고 대학생 개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성숙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이면서 우리나라의 구강보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책임 있고 훌륭한 구강보건전문 인력인 치과위생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에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치위생과 4개 대학의 3학년 졸업생 209명을 대상으로 2007년 10월 8일 부터 11월 16일까지 1개월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연구방법

취업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이⁶⁾, 박⁸⁾, 나¹⁰⁾의 설문도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5문항, 취업스트레스 15문항, 대처방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유형에 관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진 3부를 제외한 206부를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요인 및 대처유형은 M±SD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및 대처유형은 ANOVA 분석(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유형의 관계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항목에 대한 신뢰도 측정결과 Cronbach's Alpha값은 0.843으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3. 연구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206명의 평균 연령은 21.5세로 22세 이하는 84.5%로 현역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자신의 환경적 상황에 대해 가정형편 정도 91.3%, 학업성취도 73.8%, 대인관계 유능성 85%, 대학생활 만족도 69.4%가 ‘중’이라고 답하였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10.7%의 대상자가 ‘하’라고 인

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명(%)

항 목	내 용	명(%)
연령	22세 이하	174명(84.5)
	23세 이상	32명(15.5)
가정형편	상	15명(7.3)
	중	188명(91.3)
	하	3명(1.5)
학업성취	상	44명(21.4)
	중	152명(73.8)
	하	10명(4.9)
대인관계 유능성	상	9명(4.4)
	중	175명(85.0)
	하	22명(10.7)
대학생활 만족도	상	54명(26.2)
	중	143명(69.4)
	하	9명(4.4)
계		206명(100)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은 <표2>와 같다.

‘지도교수님이 나의 취업에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아 섭섭하다’가 연령별 두 집단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에 ‘취직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구직매체를 둘러본다’,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대학 생활의 낭만을 누리지 못한다’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취업을 못 한다면 자존심이 몹시 상할 것 같다’의 항목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그룹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가정형편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은 ‘상’이라고 답한 대상자들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p<.05)’, ‘취직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구직매체를 둘러본다(p<.05)’, ‘스스로 실망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p<.05)’에 대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성취도와 관계에서는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에 대해 성취

도가 '하'라고 답한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높았으며(p<.05), '가족과의 불화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직이 너무 어려워 답답하다'에 있어서는 학업성취도가 '상'인 대상자들이, '스스로에 실망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는 '하'라고 답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가 높았다(p<.05).

대인관계 유능성에 있어서는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일수록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p<.05)', '학업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p<.05)',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p<.05)', '나의 실력은 우수하지만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서 불리할 것 같아 걱정이다(p<.05)'에 대해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스스로에 대해 실망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p<.001)'의 항목에는 '하'라고 답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가 높았다.

대학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는 '상'이라고 답한 학생이 다른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 대상자들이 '나의 실력은 우수하지만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서 불리할 것 같아 걱정이다(p<.005)'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또한 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일수록 '취업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p<.05)', '직업에 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p<.05)'에 대해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요인

단위 : M±SD

항 목	연령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도
	22세 이하	23세 이상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	2.22±.784 2.22±.706 .481	3.33±1.155 2.20±.754 2.27±.799 3.279*	2.30±.823 2.14±.749 2.48±.792 3.302*	1.86±.941 2.24±.735 2.78±.667 4.951*	1.78±.441 2.22±.716 2.30±.924 1.759	
2. 학업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2.02±.892 2.00±.672 .344	2.67±1.115 1.99±.791 2.13±.915 1.206	1.80±7.632 2.03±.849 2.00±.682 .389	1.50±.512 2.07±.807 2.22±.972 5.406*	1.78±1.093 2.08±.792 1.87±.778 1.799	
3.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	1.91±.811 1.94±.716 .621	2.67±1.155 1.90±.768 1.93±1.033 1.366	1.80±.632 1.93±.827 1.89±.722 .175	1.45±.510 1.97±.798 2.00±1.000 4.316*	1.56±1.130 1.97±.759 1.83±.818 1.580	
4. 취직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구직매체를 둘러본다.	1.81±.675 2.00±.568 6.299	3.00±1.000 1.82±.643 1.80±.676 4.868*	2.00±.943 1.84±.645 1.82±.657 .318	1.64±.581 1.85±.644 2.11±1.054 1.839	1.44±1.014 1.85±.620 1.89±.691 1.776	
5.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대학 생활의 낭만을 누리지 못한다.	1.93±.819 1.91±.588 4.617	2.67±1.155 1.93±.777 1.73±.799 1.793	2.00±.667 1.97±.833 1.75±.615 1.357	1.59±.908 1.95±.753 2.22±.972 2.752	1.56±.527 1.90±.744 2.04±.910 1.610	
6.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돈을 벌어야 한다.	2.32±1.064 2.47±1.164 .205	2.00±1.000 2.31±1.055 2.87±.302 2.035	2.70±1.418 2.36±1.064 2.20±1.047 .932	2.45±1.299 2.34±1.059 2.22±.972 .175	2.44±1.740 2.32±1.018 2.39±1.123 .115	
7. 가족과의 불화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직이 너무 어려워 답답하다.	1.67±.657 1.81±.535 5.430	2.00±.000 1.68±.643 1.80±.676 .618	2.30±1.059 1.65±.612 1.68±.561 5.003*	1.45±.671 1.72±.640 1.67±.500 1.695	1.44±.726 1.65±.585 1.83±.746 2.316	
8. 나의 실력은 우수하지만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서 불리할 것 같아 걱정이다.	1.89±.751 1.75±.568 .385	2.00±1.000 1.86±.711 1.87±.915 .053	1.90±.738 1.92±.759 1.66±.568 2.259	1.27±.456 1.94±.725 1.78±.667 9.038***	1.22±.441 1.83±.661 2.06±.856 5.784**	
9. 지도교수님이 나의 취업에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아 섭섭하다.	2.78±1.152 2.47±.718 8.084	3.67±1.528 2.73±1.086 2.53±1.187 1.331	2.80±1.229 2.82±1.110 2.43±1.043 2.119	2.32±1.086 2.79±1.091 2.67±1.225 1.816	2.66±1.015 3.00±1.229 1.86±.726 2.559	
10. 취업을 못 한다면 자존심이 몹시 상할 것 같다.	3.57±1.179 3.53±1.244 .240	3.67±1.528 3.56±1.180 2.67±1.291 .068	3.60±1.075 3.53±1.151 3.70±1.340 .387	3.50±1.504 3.57±1.142 3.78±1.302 .176	3.89±1.167 3.54±1.124 3.59±1.353 .383	
11. 스스로에 실망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	2.40±.979 2.44±.878 .954	3.67±1.528 2.35±.927 2.87±1.060 4.770*	2.30±.823 2.32±.857 2.75±1.241 3.632*	2.09±1.065 2.38±.895 3.67±1.118 9.719***	2.44±1.424 2.37±.870 2.50±1.112 .359	
12. 취업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	2.11±.996 2.03±.897 1.941	2.00±1.000 2.10±.962 2.13±1.246 .024	1.90±1.101 2.10±.926 2.16±1.140 .286	2.18±1.402 2.10±.926 2.00±.826 .123	1.33±.500 2.06±.898 2.33±1.166 4.538*	
13. 키가 작아서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	1.86±.970 1.84±.767 1.689	1.67±.577 1.88±.948 1.67±.900 .412	1.80±.919 1.88±.962 1.80±.878 .163	1.73±1.120 1.86±.918 2.11±.928 .539	1.56±.882 1.80±.827 2.07±1.179 2.220	
14. 직업에 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	2.27±.881 2.16±.723 3.599	2.33±1.528 2.25±.844 2.27±.961 .016	2.20±.789 2.30±.890 2.11±.754 .789	2.05±.899 2.27±.852 2.44±.882 .896	1.67±.707 2.21±.759 2.46±1.059 4.015*	
15. 졸업 후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2.73±1.128 2.53±.950 1.908	3.00±1.000 2.70±1.108 2.67±1.113 .118	2.90±1.101 2.71±1.102 2.61±1.125 .304	2.91±1.231 2.70±1.090 2.11±.928 1.690	3.67±1.500 2.65±1.030 2.67±1.166 3.723	
계			206명 (100%)			

* p<.05 ** p<.005 ***p<.00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유형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표3>과 같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에 대해 연령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p<.05), 가정형편이 ‘상’이라고 답한 집단에서 ‘술을 마신다(p<.05)’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분석한다’의 방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취도가 ‘하’라고 답한 대상자들은 ‘담배를 피운다 (p<.005)’, ‘약을 복용한다(p<.001)’는 항목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따른 상관성은 ‘상, 중, 하’ 세 집단 모두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1), 대인관계 유능성이 ‘하’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담배를 피운다(p<.005)’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이라고 응답한 대상자 일수록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5)’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이 ‘상’일수록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춤을 추러간다(p<.05)’,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p<.05)’라고 답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가 ‘상’이라고 답한 집단일수록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p<.05)’,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분석한다(p<.005)’,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p<.05)’,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p<.005)’, ‘바람을 쐬다(p<.05)’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유형

단위 : M±SD

항 목	연령		가정형편	학업성취도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도
	22세 이하	23세 이상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1.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	3.13±.797 3.03±.695 1.762	3.00±.000 3.13±.749 3.00±1.195	.000 1.074	3.30±1.059 3.14±.749 2.98±.821	3.59±.734 3.09±.753 2.44±.882	3.78±.833 3.10±.748 3.04±.823 3.606*
2.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분석한다.	3.14±.927 2.97±.782 3.885*	3.00±.000 3.13±.904 2.93±1.033	.000 1.074 .340	3.70±.823 3.13±.859 2.91±1.030	3.41±.908 3.10±.901 2.67±.866	3.89±.601 3.00±.814 3.28±1.089 5.535**
3.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3.30±.799 2.97±.782 4.329*	3.33±.577 3.22±.796 3.53±.743	.577 .796 .743	3.00±.667 3.28±.807 3.20±.765	3.45±.800 3.22±.803 3.22±.441	3.56±1.014 3.17±.712 3.41±.922 2.547
4.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2.59±.919 2.47±.842 .722	2.67±.577 2.57±.895 2.53±1.125	.577 .895 .125	3.10±1.101 2.54±.913 2.57±.818	2.73±.985 2.54±.889 2.89±1.054	1.89±.782 2.55±.853 2.74±1.013 3.615*
5. 술을 마신다.	2.57±1.140 2.59±1.043 .252	4.00±1.000 2.58±1.104 2.20±1.207	1.000 1.104 1.207	3.00±1.491 2.49±1.073 2.77±1.179	2.82±1.402 2.55±1.070 2.44±1.424	2.56±1.509 2.52±1.033 2.70±1.283 498
6. 과식을 한다.	3.10±1.113 2.88±1.070 .012	3.67±1.155 3.03±1.106 3.47±1.060	1.155 1.106 1.060	3.10±1.101 2.99±1.104 3.34±1.098	2.91±1.377 3.06±1.073 3.56±1.014	3.22±1.481 2.99±.933 3.26±1.306 1.290
7. 담배를 피운다.	1.37±.699 1.47±.761 .842	2.00±1.732 1.36±.660 1.53±.990	1.732 .660 .990	1.30±.675 1.30±.596 1.70±.954	1.32±.780 1.36±.645 2.00±1.323	1.00±.000 1.35±.684 1.54±.794 2.803
8. 약을 복용한다. (진통제, 환각제 등)	1.30±.665 1.44±.564 .426	1.67±1.155 1.30±.591 1.53±1.125	1.155 .591 1.125	1.30±.675 1.23±.508 1.64±.942	1.32±.894 1.30±.601 1.67±.866	1.44±1.333 1.28±.549 1.41±.740 .924
9.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	2.24±.954 2.19±.693 4.841*	2.33±.577 2.24±.920 2.07±.961	.577 .920 .961	2.10±.994 2.26±.926 2.14±.878	1.64±.902 2.28±.888 2.67±1.000	1.56±1.014 2.24±.898 2.30±.924 2.636*
10. 그 일이 잘되지 해달라고 진심으로 바란다.	3.98±.918 3.53±1.107 4.592*	4.33±.577 3.88±.974 4.13±.834	.577 .974 .834	4.30±.675 3.89±.960 3.89±1.017	4.36±.727 3.83±.977 4.22±.833	4.56±.726 3.87±.959 3.91±.976 2.199
11.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2.93±.989 2.91±.641 7.501*	2.33±.577 2.93±.942 3.00±1.000	.577 .942 1.000	3.30±1.252 2.94±.922 2.80±.930	3.09±1.065 2.90±.939 3.00±.707	2.56±1.130 2.88±.868 3.11±1.076 1.918
12.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	3.07±.959 3.06±.759 5.177*	2.33±.577 3.05±.918 3.40±1.056	.577 .918 1.056	3.60±.699 3.05±.965 3.02±.821	3.32±1.086 3.05±.909 2.89±.928	3.89±1.269 3.08±.868 2.89±.965 4.699**
13. 바람을 쐬다.	3.60±.978 3.28±.924 .561	2.67±.577 3.57±.981 3.47±.915	.577 .981 .915	3.50±1.179 3.59±.965 3.43±.974	3.91±.868 3.53±.981 3.11±.928	4.33±.866 3.49±.948 3.59±1.019 3.302*
14.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춤을 추러간다.	2.39±1.063 2.31±.931 .467	2.67±.577 2.37±1.024 2.40±1.352	.577 1.024 1.352	2.90±1.287 2.30±1.009 2.55±1.066	2.91±1.411 2.31±.988 2.33±.707	2.00±1.118 2.31±.966 2.63±1.186 2.531
15.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3.37±.987 2.94±1.014 1.038	3.00±.000 3.34±.997 2.93±1.100	.000 .997 1.100	3.80±1.229 3.28±.985 3.27±.997	3.82±.853 3.24±1.017 3.22±.667	3.56±1.509 3.25±.930 3.39±1.089 .670
계			206명 (100%)			

* p<.05 ** p<.005 *** p<.001

3.4 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유형의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유형과의 관계는 <표4>와 같다.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p<.005)’, ‘담배를 피운다(p<.005)’, ‘약을 복용한다(p<.005)’,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05)’와 높은 관련이 있었으며, ‘학업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는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5)’와 상관성이 높았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낸다’는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p<.05)’,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p<.05)’, ‘담배를 피운다(p<.05)’, ‘약을 복용한다(p<.05)’와 관련이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05)’와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직자리를 놓칠까봐 많은 시간을 취업정보센터나 구직매체를 둘러본다’는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p<.005)’,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05)’와 상관성이 높았다. ‘취업에 대한 압박감으로 대학 생활의 낭만을 누리지 못한다’는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05)’,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춤을 추러간다(p<.05)’의 순서로 관련성이 있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돈을 벌어야 한다’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분석한다(p<.05)’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p<.005)’와 보다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과의 불화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취직이 너무 어려워 답답하다’는 주로 ‘약을 복용한다(p<.005)’와 상관성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나의 실력은 우수하지만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서 불리할 것 같아 걱정이다’는 요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05)’, ‘그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바란다(p<.005)’, ‘바람을 쐬다(p<.05)’의 순서로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못 한다면 자존심이 몹시 상할 것 같다’는 ‘술을 마신다(p<.05)’, ‘과식을 한다(p<.005)’, ‘그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바란다(p<.005)’,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p<.05)’,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p<.005)’와 통계적으로 상관성이 있었다. ‘스스로 실망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p<.05)’,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5)’,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p<.05)’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다’는 ‘담배를 피운다(p<.005)’, ‘약을 복용한다(p<.005)’,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p<.05)’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키가 작아서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는 ‘담배를 피운다(p<.005)’, ‘약을 복용한다(p<.005)’, ‘그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바란다(p<.05)’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에 대한 나의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p<.05)’, ‘담배를 피운다(p<.005)’,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p<.005)’와 관계가 있었으며, ‘졸업 후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다’는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에 전념한다(p<.05)’, ‘담배를 피운다(p<.05)’,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p<.05)’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대상자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유형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요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대처유형 1															
대처유형 2															
대처유형 3															
대처유형 4															
대처유형 5															
대처유형 6															
대처유형 7															
대처유형 8															
대처유형 9															
대처유형 10															
대처유형 11															
대처유형 12															
대처유형 13															
대처유형 14															
대처유형 15															

* p<.05 ** p<.005

4. 총괄 및 고안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갈등과 경쟁이 치열하고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복잡하게 변화됨으로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많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며¹⁾ 현대인이 경험하는 질병 가운데 80%정도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만큼 다양한 질병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질병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라든지, 대인관계유지와 같은 인간관계문제나 작업의 질이나 양과 같은 생산성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⁹⁾.

대학생 시기는 이렇듯 치열한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많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경험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시기로 학업문제, 취업진로문제 등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위생과 졸업반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를 알고 대처방식을 알아보는 것으로 가정형편, 학업성취,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가 없는 관계로 타 전공 또는 타 학년을 기준으로 한 기존 연구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따른 대처방식과의 다른 점을 비교할 수 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는 것을 미리 제시하는 바이다.

박¹¹⁾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업(24%)이라고 하였고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한 본 연구의 스트레스 요인도 학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스스로에 실망되고 모두 나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든다'에 대해서 학업성취도가 '하'라고 답한 대상자들의 스트레스가 높았던 것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강¹¹⁾의 논문에서 제시된 인문계학생들은 가족적 스트레스에서, 자연계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예술계 학생들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보인다고 한 연구 결과와 같이 치위생과가 자연계 계열로 자연계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⁹⁾의 논문에서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함을 보였다. 이렇듯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서 취업과 연관된 스트레스 중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¹²⁾의 논문 중 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요인 중 학업이 차지하는 비중 (M:3.418)에서 보여준 결과와도 일치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이 학업을 중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생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요인으로 보여지며 그러기에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궁극적으로는 전체 건강을 증진, 유지시키는 것이라 생각 된다.

이¹³⁾의 논문에서 사회적 편견(지방대학)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제시된 바와 같이 '나의 실력은 우수하지만 학교 수준이 낮아 서류전형에서 불리할 것 같아 걱정이다'에 대해 스트레스가 높았던 본 연구와도 같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일부의 몇 개 대학만으로 제한되었던 것만큼 조사학교의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도 확장 시켜 학교의 지역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비교 평가해 보는 연구도 추후의 연구로 필요하리라 생각 된다. 가정형편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분석한 박⁹⁾의 연구에서 보여진 결과는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황⁷⁾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가정형편 자체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⁶⁾의 연구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제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형편과의 취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분석한 결과는 없었으나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지만 집안 사정상 돈을 벌어야 한다'고 제시한 답변에서 높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가정형편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유형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로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이⁶⁾의 연구에서 제시한 장애를 극복한 사람일수록 진로의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성공한 경험이 있고 이것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작용하여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유형 중 '그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바란다'와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는 대처방안을 비교적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¹²⁾의 연구에서 중, 고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처방식이 정서 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와도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라고 대답한 비율과 학업성취도가 높은 대상자들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세히 분석 한다'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나¹⁰⁾의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 수준이 낮아진다고 나¹⁰⁾의 연구에서는 제시하였고 이것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학업성취도가 '하'라고 답한 대상자들은 '담배를 피운다', '약을 복용한다'는 대처방식 항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담배를 피우거나 약을 복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쉬우면서도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비교적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황¹⁴⁾의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는 여학생들은 다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보다 학업적 적응이 높았고 체념 및 회피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학생들은 다른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여학생들보다 사회적 적응이 낮았다고 하는 결과와도 일치를 보이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다.

황¹⁴⁾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들이 성별,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고 김¹⁵⁾의 연구에서 역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제시 하였으나 본 연구는 3학년 졸업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기에 학년별로의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고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는 한계를 다시 한번 제시하는 바이다. 각 스트레스 요인별로 대처방식에서 혼자 있으려고 한다. 단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의 일시적인 대처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으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인 회피적 대처방식에 불과하며 이는 한¹⁶⁾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는 누구나가 받는 것이고 그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여 회피적이거나 소망적 대처방식으로 어렵게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

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의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해야 할 치위생과 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 및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좀 더 의미 있는 취업을 위해서 성별, 학년별, 지역별 등의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 서로 비교 검토 보완 할 수 있는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셋째, 다 전공에 비해 비교적 취업이 수월한 전공이라 할지라도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끈임 없는 새로운 인력 창출에 대한 연구 또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을 마련이 중요할 것이며 타전공과의 적합성과 연구 및 개발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5. 결론

에비치과위생사들의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 요인을 알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알아봄으로써 정신적으로 좀 더 성숙된 유능한 치과위생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 동안 수도권 4개 대학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총 20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206부를 SPSS WIN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ANOVA 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상자의 84.5%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을 입학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취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대해 각각 95.2%, 95.6% 이상이 '중'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지도교수님이 나의 취업에 지도와 관심을 보여주시지 않아 섭섭하다', '취업을 못하면 자존심이 몹시 상할 것 같다'에 대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유형은 '그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바란다', '바람을 쐬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과식을 한다', '언젠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다린다'는 대처방안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스트레스 요인은 '대체로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대처유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취업을 못하면 자존심이 몹시 상할 것 같다'와 '과식을 한다'와의 연관성이 높았다. 그 외에도 '답배를 피운다', '과거 경험에 의존한다' 등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참고문헌

1. 박재원, 서수교.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2006;26:131-147
2. Blau, G.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job stress social support, service length, and job strain. *Organization Behavior & Human Performance* 1981;27(2):279-302
3. Schuler, R. S. Definition and conceptualization of stress in organization. *Organization Behavior & Human Performance* 1980;25(2):184-215
4. Kyriacous, c & J .Sutcliffe. A model of teacher stress. *Educational studies*. 1978;4:1-6
5. McGrath, J. E. Stress and behavior organization. in MD. Dunnette(ed).*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976
6. 이미경.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기독교 사회사업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7. 황성원.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8.
8. 박성환. 특수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9. 김영상.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전공 석사학위논문, 2004
10. 나희진.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11. 강부명. 대학생들의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3
12. 이진선.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 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13. 이경민. 대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2005;29:417-440
14. 황상하.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4
15. 김광민.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6. 한정아.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스트레스 대처방식(부정적 기분조절과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5
17. 계선자.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 만족도. 대한 가정의학회지. 2001; 39(2) 57-72
18. 오가실, 한정석.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간호학회지. 1990; 20(3) 43- 68

ABSTRACT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and the Coping Type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Kim Eun-Ju · Kim Jin-Kyou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ongnam Health College

I

Indexes : Dental Hygiene Students, Employment stress, Stress, Coping ty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basic data in order to make it possible for becoming the mentally more matured dental hygienist by being aware of stress factors on employment i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and examining a coping plan according to it.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research was carried out targeting Dental Hygiene Students at 4 colleges in metropolitan area for 1 month from October to November in 2007. Totally 20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mong them, 206 copies were analyzed with methods in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ANOVA analysis by using SPSS WIN10.0 statistical program.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1. 84.5% out of subjects were the active students. 95.2% and over 95.6%, respectively, were surveyed to be more than 'moderate' as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level and th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2. the majority in the survey subjects were researched to receive high stress as for 'a guiding professor doesn't lead and have interest in my employment, thereby being disappointing' and 'failing to be employed is likely to lead to hurting pride so much.'

3. a coping type with stress in the survey subjects was researched to select a coping plan much as for 'sincerely hoping for the work to be well done,' 'going out for a change,' 'establishing a few countermeasures for solving a problem,' 'overeating,' and 'waiting while thinking it to be solved some time.'

4. most of stress factors had high correlation with a coping type with saying of 'trying to be alone as a whole,' and had high correlation with 'failing to be employed is likely to lead to hurting pride so much' and 'overeating.' Even additionally, it was surveyed to have high correlation with 'smoking' and 'depending on the past experience.'